

하고 싶어서는 9.3% 이었다.

11) 간호원의 현직에서의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 경우 56.1%, 불만족 43.9% 였다.

12) 간호원의 현직에서의 만족한 이유 중 보람을 느껴서가 46.7%, 보수가 많아서 12.5% 였다.

13) 간호원이 현직에서 불만족한 경우 앞으로 전직 희망자중 병원이 38.3%, 양호교사 30.2%, 보건소 및 행정부서 12.6% 였다.

14) 간호원의 애로사항은 인식부족이 24.8%, 직원 및 회사측의 비협조가 21.5%, 근무시간이 길다가 4.2% 였다.

15) 간호원의 앞으로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은 정기적 교육을 받고 싶다가 33.2%,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가 17.8%, 보건업무의 독립이 14.0% 였다.

## 보건관리요원 실태조사

중앙의학, 제 31권 제3호, 1976

김순례 · 문정순 · 한상임

1975년 11월 국내의 근로 기준법 적용 산업장 607개소 보건관리요원들의 자격 배경과 의무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607개 산업장 보건관리요원들의 연령별 분포는 21~25세군이 33.4% 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요원 중 80% 가 30세 이하의 젊은층이었다.

2) 보건관리요원들의 학력은 고졸군이 75.3% 가장 많았다.

3) 보건관리요원들의 보건 의료분야 경력은 전반적으로 짧아서 60.0% 가 1년 미만 이었고, 업종별로는 광업, 식품업, 요토석업계의 요원들이 타업종의 요원들 보다 비교적 경력이 길었다.

4) 보건관리요원들의 일일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하고 있는 곳이 68.8% 였으며, 업종별로는 목재업, 상업계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업소가 많았다.

5) 보건관리요원들의 산업보건에 대한 교육이수 유무를 보면 63.6% 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업종별로는 금융업, 기타제조업, 목재업, 섬유업계에 비교적 교육 받은 요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6) 보건관리요원들의 업무를 보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가 60.1% 로서 가장 높아 전체 요원들이 소극적 치료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요원들의 산업보건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높다가 49.8%, 보통이다가 46.8% 매 우낮다가 3.4% 였다.

8) 산업장의 의무실을 설치한 곳이 34.1% 였고, 업종별로는 광업, 화학업, 목재업

계가 50% 정도이며 운수업계는 4.2%만이 의무실이 있었다.

9) 의무실요원은 전임의사 요원을 둔 곳이 20.3%, 시간제 의사와 요원을 둔 곳이 2.6%, 간호사만 있는 경우가 4.1%, 보조원만 있는 곳이 18.0%였고, 나머지 55.0%가 사무겸직이었다.

10) 산업장의 직원수와 의무실 유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 $p < 0.001$ ) 직원수가 많은 대규모의 산업장일수록 의무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

11) 산업장 직원수와 의무실요원 배치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 $p < 0.01$ ) 직원수가 많은 대규모의 산업장일수록 근로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의무실 요원을 배치하고 있었다.

## 제 특성에 따른 산업장 공상사고와 간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제15권 제4호, 1976

최 경 숙

본 연구는 경북주재 모 섬유기업을 중심으로 작업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제반자료를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 1. 공상 발생율과 보고된 무상해 공상비율

1) 과별 공상비율은 방적과가 가장 높았는데 과 전인원에 대한 발생율은 평균 발생율보다 오히려 낮았다. 과 전인원에 대한 발생율이 높았던 과는 방모과와 정비과였다.

연도별로는 74년에 비해 75년이 전체적인 공상율이 현저히 감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방모과, 직포과, 가공과는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근무기간별 공상발생은 대체적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공상율도 현저히 높았고 연령별 발생율은 26~30세군에서 가장 높았다.

2) 공상 건수에 대한 무상해 보고건수의 비는 본자료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비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상해 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제 특성별 공상자 분포

1) 공상 발생비율은 대부분 저 연령군에서 (25세 이하) 높았으나 75년 남자의 경우 31세 이상에서 높았고 외상과 골절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상이 낮은 연령군에서 발생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상사고율은 감소현상을 보였다.